

북한 김정은 시대 청년동맹 연구

김종수*

- I. 서론
- II. 북한 청년동맹의 성격과 발전 과정
- III. 김정은 시대 청년동맹의 활동과 특징
- IV. 김정은 시대 청년동맹의 전망
- V. 결론

국문요약

북한의 청년들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은 “청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며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따라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가 좌우”되는 환경에 처해 있다. 또한 김정일이란 강력한 권력자가 사망하고 정치적 카리스마와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였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김정은 시대 초기 청년동맹의 역할을 분석하여 체제안정성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하고자 하였다.

김정은 시대에서는 청년동맹 출신이 당의 핵심 지도부로 부상하는 특징이 있다. 북한에서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김정은 시대가 출범 시기에 발생한 중동의 ‘재스민 혁명’에서 청년들이 체제변화의 주력세력으로 나선 것을 목격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사상통제가 더

욱 중요하게 된 것이다. 현재 북한 청년들은 국가차원의 핵심 경제 사업인 ‘어렵고 힘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와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처해 있지만 청년들이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중요한 건설 사업을 맡아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전체 주민들에게 보여주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정일 시대 청년사업의 ‘치적’으로 내세웠던 청년들을 주체 혁명위업의 계승자,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 역할은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에 대한 당적지도 강화와 다른 근로단체보다 청년동맹이 더 정치적으로 부각된다는 자긍심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당 중앙위원회 청년사업부의 부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제어: 청년동맹, 김정은, 청년돌격대, 최용해

I. 서론

북한사회의 특징은 조직생활이라 할 수 있다. 북한주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북한의 어린이는 출생 후 3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탁아소 생활을 하면서 조직생활을 익히게 되고 정규적인 조직생활은 소

* 인제대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학교 입학하면서 조선소년단 생활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을 거쳐 조선노동당 또는 조선직업총동맹 등과 같은 근로단체에서 조직생활을 한다. 북한에서는 조직생활에 대해 ‘사상단련의 용광로’, ‘혁명교양의 학교’로 정의한다. 북한의 당원과 근로단체 구성원들은 정치조직 생활을 통해 ‘수령의 혁명사상’을 정치적 ‘양식(糧食)’으로 섭취하고 조직과 동료들의 ‘방조(傍助)’하에 자신을 단련해 나간다.¹

북한의 14~30세 청년들은 ‘유일 청년조직’인 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한다. 청년동맹원 수는 약 500만 명이며 여기에 소년단원 300만 명까지 포함하면 규모면에서는 최고의 조직이 된다. 청년동맹은 스스로의 성격을 “김일성동지께서 무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이 영도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청년조직이며 우리나라 청년들의 공산주의적 대중단체”, “조선노동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며 우리당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으로 규정한다.²

최근 북한지도부는 사고의 유연성을 잃은 구세대보다 신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진정한 김정일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모든 사회가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중요시하지만 대내외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에서는 더욱 그렇다. 북한당국은 “청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며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 데 따라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가 좌우되게 된다”고 인식한다.³ 이에 김정일이 조선소년단 창립 66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장시간 행사에 참석하는가 하면, 2012년 청년절 행사에 전국 각지의 청년 대표 1만 명을 평양으로 집결시켜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 주체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해 나가는 대정치축전”으로 치루기도 하였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이라는 강력한 권력자가 사망하고 정치적 카리스마와 지지 기반이 미약한 김정일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을 승계했다. 이는 지배체제 내의 분화 가능성과 아울러 체제위기 상황에 체계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⁴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것에 민감하고 열정적인 특성과 단련되지 못하고 다른 사상에 ‘감염’되기 쉽다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

¹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7), p. 58.

² 박정렬,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규약해설』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4), p. 5.

³ “청년들은 당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예를 떨치자,” 『로동신문』, 2011년 8월 28일.

⁴ 박형중 외,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 235.

는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북한체제 안정성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즉, 이 논문은 문헌분석 방법을 통해 ‘계승의 시기’인 김정은 시대 초기에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와 지속의 주역을 담당하는 청년들의 정치적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체제 안정성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북한 청년동맹의 성격과 발전 과정

1. 청년동맹의 성격과 역할

2010년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제9장 ‘당과 근로단체’에서는 근로단체의 기본적인 위상과 역할에 대해 “대중적 정치조직이며 사상교양 단체”이며, “당의 외곽단체이고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청년동맹은 세대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대를 이어 나갈 당의 정치적 후비대”의 기능과 임무를 더 부여받고 있다. 당은 청년동맹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의 대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에 앞장서는 돌격대”가 되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 청년동맹은 근로단체의 하나이다. 근로단체는 자기 활동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균중을 당의 주변에 묶어세움으로써 당의 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당과 대중과의 연계를 보장하며 당으로 하여금 인민대중의 조직적 단결의 힘을 체현한 위력한 당으로 만든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전위대와 선진계급의 대중, 그리고 그와 근로대중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인전대, transmission-belt)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레닌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의 외곽단체로서 직업동맹, 농민동맹, 청년동맹, 여성동맹과 같은 대중조직이 지닌 중요성에 일찍이 주목한 것이다.⁵ 국가정권은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로서 당의 영도 밑에 자기의 주권적 및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과 인민들을 연결시킨다면 근로단체는 당의 영도 밑에 자기의 조직사상적 활동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근로자들을 당과 연결시킨다. 북한 근로단체는 계층별, 연령별, 성별, 직업별에 따라 조직되는데, 청년동맹은 청년들 속에서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 청년들을 수령에게 충실한 혁명투사로 키우는 역할을 수행하는

⁵ 이종석,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연구,” 이종석 편,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 (세종연구소, 1998), p. 18.

것이다.

북한은 근로단체의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한다.⁶ 첫째, 근로단체는 대중적 정치조직이며 사상교양단체이다. 당이 근로단체를 조직하는 것은 광범한 대중을 자기 주변에 묶어 인민대중에 대한 당의 영도적 지위를 확립하며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기 위해서이다. 근로단체는 동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정치적으로 각성시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고 당과 수령의 주변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의 혁명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조직·동원하는 사상교양단체, 정치적 조직이다.

북한 청년동맹은 대중정치조직이다. 북한은 청년동맹에 대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주체형의 혁명적 청년조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자기의 투쟁목적으로 하고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근로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들의 공산주의적 대중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⁷ 청년동맹은 만 14~30세의 북한의 모든 청년들이 가입하여 동맹원 수가 500만 명이 된다. 여기에 소년단원 300만 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양적 측면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북한 근로단체 중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맹)은 약 160만 명,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하 농근맹)은 약 130만 명, 조선민주여성동맹(이하 여맹)은 약 120만 명의 맹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⁸ 이들 세 개 단체의 맹원수를 다 합쳐도 청년동맹의 맹원수보다 적다.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조선노동당원도 약 322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기에 청년동맹이 규모면에서는 북한의 최대 정치조직임을 알 수 있다.

조선소년단은 1926년 12월 15일 김일성이 조직했다고 하는 ‘새날소년동맹’을 효시로 하고 있으며, 1946년 6월 6일 정식 창립하였다. 조선소년단은 만 7~13세의 청소년들이 가입하여 사상교양 활동과 조직 활동을 통해 유일사상을 학습하고 실천한다. 북한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지식 욕구가 왕성한 소년 시기에 자연과 사회의 현상을 옹기 보는 관점과 태도를 키워 혁명적 세계관을 갖추기 위해 소년조직을 건설했다고 설명한다. 북한 청소년들은 조선소년단에서 본격적인 조직활동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정치사회화를 수행하는데 청년동맹이 직접 조선소년단을 지도하도록 청년동맹 규약에 규정하고 있다.⁹

⁶ 김중수, 『북한 청년동맹 연구』 (서울: 한울, 2008), pp. 32~33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⁷ 박정렬,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규약해설』, p. 7.

⁸ 김중수, 『북한 청년동맹 연구』, p. 35.

⁹ 조선소년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중수, 위의 책, pp. 72~95를 참고.

청년동맹은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청년동맹이 사상교양단체로 현재 청년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사상교양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공산주의도덕교양 등이 있다. 현재 청년동맹이 실시하고 있는 사상교양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냉전시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이 실시했던 사상교양과 대동소이하다. 충실성 교양을 통해 “혁명의 주체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역할과 영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할 수 있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¹⁰ 최근 들어 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청년동맹을 김정은동지의 영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위력한 전투대로로 되게 하며 청년들이 조선혁명의 연대기마다 높이 발휘된 기적과 혁신의 전통, 혁명적 낙관주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 나가도록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교양하고 있다.¹¹

둘째, 근로단체는 당의 외곽단체이며 인전대이다. 당의 외곽단체로서의 근로단체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옹위하며 당의 영도적 역할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김일성은 “복숭아씨를 당이라고 하면 거기에 붙어있는 살을 근로단체”로 비유하였다. “복숭아가 잘 크고 맛있게 익어야 안에 있는 씨가 잘 보호되고 실속 있게 여무는 것처럼 근로단체들이 일을 잘 해야 대중을 당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울 수 있으며 당을 힘 있는 당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¹²

셋째, 근로단체는 당의 방조자(傍助者)이며 후비대이다. 이는 근로단체들이 당의 위업,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에서 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당의 위업, 사회주의·공산주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는 정치적 조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단체들은 동맹조직들을 당을 둘러싸고 있는 위성조직들로, 방패의 대으로 만들고 당을 견결히 보위한다. 혁명의 핵심역량인 노동계급을 망라하고 있는 직업동맹과 사회의 가장 활력 있는 역량인 청년들을 망라하고 있는 청년동맹은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는데서 돌격대, 결사대의 역할을 담당 수행한다. 당의 정치적 후비대라는 것은 “당대렬을 끊임없이 보충해주는 저수지, 당과 국가 간부의 후비를 길러내는 원천지”이기 때문이다. 청년동맹은 전망성 있는 좋

¹⁰ 김정일,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8월 23일),” 『김정일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80.

¹¹ “선군령장의 발걸음따라 청년들 앞으로,” 『로동신문』, 2012년 1월 17일.

¹²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75.

은 청년들로 청년동맹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당 및 국가 간부 후비로 키운다.¹³ 특별히 청년동맹은 청년조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예비 당원 배출의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인재 양성소가 된다. 따라서 청년동맹은 여타의 근로단체들보다 강도 높은 규율과 당성을 청년동맹원에게 요구하고 있다.¹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청년동맹의 당 후비대 역할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 이전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청년동맹 출신 간부들이 당 중심 직책으로 등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년동맹의 역사적 발전 과정

북한 청년동맹은 1946년 1월 17일 ‘민주청년동맹’으로 창립하였다. 초기 민청은 청년들의 통일전선조직으로서 활용되었다. 김일성은 소수의 청년공산주의자들로만 공산당의 정권 획득·유지 및 ‘민주개혁’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광범한 청년들을 망라한 대중적인 청년단체를 조직하여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혁명의 성패는 결국 누가 대중을 더 많이 전취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김일성의 인식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청년조직이 아닌 ‘민주’ 청년조직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¹⁵ 김일성은 소수정예의 청년 공산주의자들을 위한 청년조직이 아닌 ‘민주주의’를 표방한 조직을 내세움으로써 많은 청년들을 포섭하고 이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확대해 나간 것이다. 민청 결성 과정에서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의 반대와 저항이 존재하였으나 통일전선의 ‘정당성’으로 인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조선민주청년동맹’은 5차 대회(1967년)에서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이하 사로청)’으로 ‘발전’하였다. 사로청으로의 변화는 1958년 북한사회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되어 개인 상공업자와 개인농이 사라짐에 따라 형식상으로 적대적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발전의 결과로 근로단체들도 과거 반제반봉건혁명시기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와는 다른 성격과 임무를 가지게 되었다. 북한사회 구조 변화가 청년동맹의 ‘질적’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전 민청이 다양한 각계각층의 청년들이 망라되었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와서는 노동청년들이 핵심이 되어 근로농민청년, 근

¹³ 박정렬,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규약해설』, p. 8.

¹⁴ 이운죽·이인정,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조선민주녀성동맹』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p. 88.

¹⁵ 북한 정권초기 청년조직의 명칭, 즉 민청 혹은 공청에 대한 논의는 김종수, 『북한 청년동맹 연구』, pp. 98~116을 참고.

로인텔리청년, 학생·청년으로 구성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사로청은 사회주의적 개조와 함께 유일체제를 확립해 나감에 있어 당에 대한 충실성과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의 교육과 확립을 본격적으로 담당해 나갈 것을 요구 받았다. 따라서 사로청의 기본임무는 주체사상에 대한 교양 사업과 사회주의 제도 공고화를 위한 경제건설의 돌격대 역할로 변하게 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이후 북한은 체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들에 사상교육 강조와 함께 청년들을 독려하고 앞세우기 위한 유인책으로 ‘청년절’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김일성이 항일운동 시기 창립했다고 주장하는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결성일인 8월 28일을 국가 기념일인 ‘청년절’을 제정한 것이다. 또한 김일성 사망 이후인 1995년부터 한 해의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신년 공동사설의 주체로 청년동맹의 기관지인 ‘청년전위’가 포함되었다. 이전에는 신년사 명의로 한 해의 정책방향을 발표했지만 김일성 사망 후에는 당보(노동신문), 군보(조선인민보), 청년보(청년전위)의 공동사설이 신년사를 대체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 군, 청년이 북한사회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또 하나의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1996년 1월 16일에 개최된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대표자회의를 계기로 청년동맹은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대표자 회의에서는 조직 명칭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하고,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도·시·군 대표 체계를 위원장, 부위원장에서 1비서, 비서 체계로 바꾸었다.¹⁷ 1996년 1월 시점은 김일성 사망과 자연재해로 인해 ‘고난의 행군’을 전개하던 시기였다. 북한 지도부는 ‘고난의 행군’ 정신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난관을 이겨나가는 혁명정신이라 강조하면서, 사로청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위훈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될 것을 강조하였다.¹⁸

청년동맹의 조직 명칭이 현재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김정일이다. 1995년 12월 김정일은 청년동맹 간부를 만나 자리에서 조직 명칭 변경에 대해 지도하였다고 한다. 청년동맹 간부들이 김정일에게 제안한 조직 명칭은 ‘김일성청년동맹’으로 추정된다. 이에 김정일은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직 명칭에 ‘사회주의’를 넣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

¹⁶ 김중수, “북한 체제 변화와 ‘청년동맹’: 동유럽 사례와 비교,” 『평화학 연구』, 제11권 1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0), pp. 107~109.

¹⁷ 김중수, 『북한청년동맹 연구』, pp. 363~368.

¹⁸ 『로동신문』, 1996년 1월 1일.

을 제시하면서 직접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라고 ‘친필’로 서명하였다.¹⁹ 김정일은 “청년동맹을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로 그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²⁰

2012년 4월 11일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일을 ‘총비서’로 ‘영원히’추대할 것과 규약 개정, 김정은을 당 ‘최고수위’에 추대할 것과 조직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하였다.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안은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틀어쥐고나간다”는 것과 “김정은 동지의 령도 밑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직”을 신설하고 “조선노동당 제1비서는 당의 수반으로서 당을 대표하고 전당을 령도하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노선을 실현해나간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김정은을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여 김정은 최고사령관을 조선노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하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²¹ 4월 13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제1위원장’이란 직을 신설하고 김정은을 추대하였다.

이어 2012년 7월 12일에 개최된 청년동맹 대표자회에서는 청년동맹 과업과 규약 개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고자로 나선 전용남 청년동맹 1비서는 김정일이 “당과 군대와 함께 청년동맹을 선군혁명 위업 수행의 기본 역량”으로 여기 “온 나라 청년들이 조선노동당의 선군정치를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었다”고 하면서 “모든 청년들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 나갈 데 대하여 강조”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청년동맹을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청년동맹,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청년동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규약 개정에서는 각급 청년동맹 위원회의 1비서, 부비서를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직책 명칭을 변경하였다.²²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은 당 대회가 아닌 대표자회를 통한 규약 개정을 통해 최고지도자의 직책을 ‘제1’로 변경한 것은 청년동맹의 사례와 유사하다. 2012년 4

¹⁹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조직으로,” 『로동신문』, 2007년 1월 17일.

²⁰ “주체적인 조선청년운동사에 새겨진 위대한 업적 영원하리,” 『로동신문』, 2012년 3월 16일.

²¹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진행,” 『조선신보』, 2012년 4월 12일.

²²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자회,” 『조선중앙통신』, 2012년 7월 12일.

월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직책을 조선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바꾼 후 나름 최고지도자의 직책 명칭의 ‘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급 기관인 청년동맹 최고 책임자의 직책을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청년동맹 조직이 당과 국가 시스템과 그들의 요구에 호응하여 민감하고 역동성 있게 대응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Ⅲ. 김정은 시대 청년동맹의 활동과 특징

1. 김정은 시대 청년동맹 지위

권력승계의 성공여부는 노·장·청 등용정책 유지와 신진엘리트 등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북한과 같은 가산제형 인적 통치는 특권 배분을 통한 충성심 유지가 관건이므로 새로운 엘리트 및 통치기관에 대한 이권과 특혜를 나눠주어야 한다. 그러나 한정된 가용 자원의 재분배가 시도 될 경우 특권 배분을 둘러싼 권력투쟁이 전개될 수 있어 지배엘리트 균열 가능성이 제기된다.²³

김정은 체제 등장 후 아직 군대의 당 및 정치기구에서는 어떤 변화도 감지되고 않고 있다. 다만, 당원들의 새로운 분위기 쇄신을 위한 ‘당원 100만 명 젊은 피’ 교체작업이 진행 중이다. 당원증 교체작업은 북한 노동당이 당원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실시해 온 당 조직정비의 일환이다. 이번 당원증 교체작업이 과거와 다른 것은 주로 과오를 범한 당원들을 당 밖으로 내보내거나 경고하는 차원이 아니라 ‘젊은 피 수혈’이라는 목표 아래 젊은 당원들을 보충하고 노인 당원들을 당 밖으로 축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100만 명이면 북한 노동당원 수를 300만 명으로 계산할 때 당원 세 명 중 한 명을 교체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²⁴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 변화 중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수령의 후견세력으로 등장한 북한 엘리트 집단의 구성과 성격이다. 지난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후계체제를 준비한 김정일과 달리 3년에도 못 미치는 짧은 기간 동안 후계자의 유일지도 체제를 확고하게 확립하지 못한 김정은에게 아버지 시대부터 견고하게 다져온

²³ 김진하,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 12.

²⁴ 정영태 외,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220~221.

엘리트 집단의 후견은 김정은 시대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²⁵ 김정일의 통치방식은 최측근 소수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측근정치’였다고 한다면, 김정은 체제에서 지배방식은 분산되고 책임분담도 제도화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²⁶

김정은 시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동맹 관련 간부들이 명실상부한 당 지도부로 등장한 것이다. 김일성은 청년동맹이 당원 양성기지로서의 역할을 당의 ‘저수지’라고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은 현재까지 이어진다. 청년동맹 출신이 당의 주요 직책을 맡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청년동맹 출신 간부들의 당 지도부 진출 현상이 김정일 시대에도 있었지만 김정은 시대에서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명실상부한 당 지도부로 부상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용해이다.

먼저 2013년 10월 시점은 김정일 사망 이후 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지 1년이 넘게 경과한 시점으로, <표 2>에 김정은 시대 국가 주요 간부 중 청년동맹 관련자들을 정리하였다. <표 1>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대국상’ 치루고 김정일이 공식적인 1인 체제를 확립한 시점인 1998년 9월 북한 정부 수립 50년 기념 열병식과 당 창건 53주년을 맞아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던 간부들의 주요 이력들을 살펴본 것이다.

<표 1> 초기 김정일 시대(1998년) 당 주요 간부

이름	당시 직책	주요 이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 당 정치국 위원 - 당 중앙위 비서 -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
리종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 정무원 총리, 국가 부주석 - 당 정치국 상무위원
박성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 국가 부주석 - 당 정치국 위원
김영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 국가 부주석 - 당 정치국 위원

²⁵ 김근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 지속과 변화,” 『평화학연구』, 제14권 3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3), p. 121.

²⁶ 김홍광 외, 『김정은의 북한은 어디로?』 (서울: 늘봄플러스, 2012), p. 26.

이름	당시 직책	주요 이력
전문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 국가검열위원장 - 평양위수사령관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인민군 총정치국장	- 공군사령관
김영춘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군 총참모장	- 인민군 6군단장
리을설	국방위원회 위원 호위사령관	- 평양방어사령부 사령관
홍성남	내각총리	-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계응태	당 비서국 공안담당 비서	- 당 정치국 위원
전병호	국방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 경제정책검열부장	- 당 중앙위 군수공업정책검열부장

출처: 통일부,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 2013』 (서울: 통일부, 2013) 등을 참고하여 작성.

<표 2> 김정은 시대 당 주요 간부 중 청년동맹 출신²⁷

이름	현 직책	청년동맹 연관성 및 특징
최용해	당 정치국 상무위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 최현의 아들 - 1986년~1998년 1월 청년동맹 위원장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 1976~1978년 사로청 위원장 - 전 당 국제부 부부장
리영수	당 비서국 근로단체부장	- 1978년 사로청 위원장 - 1985년 청년사업부 부부장
문경덕	당 비서 겸 평양시 당 책임비서	- 1991년 사로청 중앙위 부위원장 - 1992년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최 휘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 청년동맹 비서 - 전 건설상 최재하의 아들
장용철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	- 장성우 전 인민군 차수의 장남 - 청년동맹 국제비서를 거쳐 조직비서 역임

출처: 통일부,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 2013』 (서울: 통일부, 2013) 등을 참고하여 작성.

²⁷ 2013년 9월 9일 북한 정부 수립 65주년 기념 노동적위대 열병식에 참석했던 간부 명단은 김영남, 박봉주, 최용해, 이영길, 장정남,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최영림, 양형섭, 이용무, 강석주, 오극렬, 현철해, 김원홍, 김양진, 김영일, 김평해, 광범기, 주규창, 김창섭, 문경덕, 노두철, 최부일, 이병삼, 조연준, 태종수, 김영대이다. 이 중 청년동맹 핵심 간부 출신 또는 관련 조직에서 활동한 인물로 최용해, 문경덕을 꼽을 수 있다.

<표 1>과 <표 2>를 비교해보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청년동맹 출신이 당 중앙의 핵심간부로 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청년동맹이 김정은 시대 핵심간부들의 연결고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이전 간부들에 비해 젊다. 앞으로 북한을 이끌어나가고 김정은 체제의 주축이 될 집단은 30, 40대의 혁명의 5, 6세대들이 될 것으로 상대적으로 젊고 청년대상의 대중사업의 지도 경험을 가진 청년동맹을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 최고 실세로 부각한 인물이 바로 최용해이다. 그는 현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 등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 그는 1986년 8월부터 1998년 1월까지 청년동맹 위원장직을 수행하였는데, 청년동맹 위상이 가장 강화된 것은 1989년에 있었던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하 평양축전)이다.²⁸ 김정일은 평양축전을 위해 능라경기장, 광복거리, 교예극장, 양강호텔, 서산호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5,000세대 주택 등 전체 260여개 건설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략예비물자까지 총 동원하였다. 그야말로 북한에서 ‘청년’ 대상 사업을 최대의 국제대회로 치룬 것이며, 이 과정에서 최용해는 청년동맹 위원장으로 청년 동원사업을 지휘하였다.²⁹ 일각에서는 최용해가 장성택의 측근이며 그의 부상에는 장성택이 일조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많으나 그와 장성택의 사이가 좋지 않아 그를 장성택의 측근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견해가 있으며, 최용해는 주위 사람들의 신망이 두텁고 능력이 출중해서 요직에 올랐다는 평가도 있다.³⁰ 최용해는 김일성과 빨치산 동료였으며, 인민부력부장을 했던 최현의 둘째 아들로, 어머니인 김철호 또한 빨치산 출신이다. 최현은 1970년대 초반에 후계 문제가 부상할 때에 김정일 편에 서서 세습을 반대하는 인물들을 숙청하는 데 공을 세웠다고 한다. 김정일과 최용해는

²⁸ 김정일은 1998년 11월 청년동맹에게 평양-남포 간 청년도로 건설을 지시했는데, 이것이 청년동맹 위상을 높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탈북자의 증언이 있다. 당시 청년동맹은 1998년 최용해 청년동맹 1비서의 해임으로 위상이 하락했다. 그 뒤를 이은 김경호도 차 사고를 낸 것이 빌미가 되어 해임되었다. 그러면서 청년동맹의 권한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청년동맹을 일으키기 위해 김정일은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을 청년동맹에 맡겼다. 도로건설 완공과 함께 청년동맹의 위상은 조금 부상했지만 이진수준으로 되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김○○ 증언(2011년 10월 8일); 정영태 외,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p. 299.

²⁹ 김정일 형상 문학 시리즈인 ‘불멸의 향도’ 중 하나인 『평양의 봉화』는 1986~1989년 김정일의 제13차 평양축전 지도사업을 소재로 삼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김정일의 결심으로 제13차 평양축전 유치를 결정한 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소련의 개최 반대를 극복하고 유치에 성공하고 나서, 전 국민들 특히 청년돌격대와 당원돌격대를 동원하여 축전을 준비하는 과정과 대회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김종수, 『북한 청년동맹 연구』, p. 350.

³⁰ 이교덕 외,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p. 261.

어려서부터 이웃으로 살아 각별했으며 최용해가 김정일을 형처럼 따랐다고 하며,³¹ 이러한 개인적, 정치적 관계가 김정은이 최용해를 최측근으로 기용한 한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청년동맹 출신 당 간부 중에 하나가 최취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다. 최취 제1부부장은 2013년 김정은의 경제부문 현지지도에 자주 동행하는 3인, 최취, 박태성, 황병서(조직지도부 군 담당)에 속한다.³² 최취는 2004년께부터 당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제1부부장에 승진한 것으로 보인다. 최 제1부부장은 이미 1990년대부터 오랫동안 청년동맹에서 과외교양 지도국장 겸 사상담당 비서를 역임했으며 선전선동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해온 경력이 있다. 그는 2000년 5월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했으며 2002년 8·15민족통일대회 북측 대표단원으로 서울을 다녀가는 등 한국과 인연도 있다.

최취 제1부부장의 부친 최재하는 6·25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평양시 복구건설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김일성 주석의 각별한 신임을 받은 내각 건설상이었다. 최재하는 북한이 대표작으로 자랑하는 장편소설 ‘평양시간’과 예술영화 ‘시련을 뚫고’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최취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청년동맹에서 근무했으며 현 북한의 실세인 최용해 총정치국장과 함께 일했으며, 그의 동생 최연은 현재 내각 무역성 부상이다.³³

북한에서는 ‘수령의 세습’과 함께 ‘간부의 세습’도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중요 간부 대부분도 권력의 대물림을 받은 사례였다. 오일정은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로, 2010년 당 대표자회 전에 중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승진한 지 6개월 만인 2011년 4월 12일 상장을 달아 초고속 승진을 하였으며, 현재는 노동적위대 사령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3월 조선중앙은행 총재로 임명된 백용천은 백남순 전 외무상의 아들이다. 1962년생인 그가 49세에 젊은 그가 내각 사무국 부장에서 중앙은행 총재로 초고속 승진을 한 배경에는 아버지가 있었다. 오금철은 항일빨치산 출신인 오백룡 전 당 군사부장의 아들도 군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오백룡의 장남인 오금철은 2010년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차남 오철산은 해군으로, 해군사령부에서 정치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당 중앙위 후보위원에 올

³¹ 정승욱, 『김정일 그 후』 (서울: 지상사, 2011), p. 85.

³² 정창현,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3-4세대 간부로 세대교체,” 『통일뉴스』, 2013년 9월 2일.

³³ “北 김정은 수행 새 인물 ‘최취 당 제1부부장’ 주목,” 『매일경제』, 2013년 5월 9일.

랐다. 서동명 대외보험총국장도 항일빨치산 원로로 당 비서와 검열위원장을 지낸 서철의 장남이다. 이용호 외무성 부상 또한 김정일의 서기실 실장을 지내고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역임했던 이명제의 아들이다.³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김정은 시대 간부의 특징으로 청년동맹 출신 중용과 ‘간부의 세습’으로 본다면 이를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비교할 때에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 지도부를 일컬어 ‘5세대 지도부’라고 하는데, 이들은 청년기에 문화대혁명이라는 대혼란을 거치면서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산간오지로 하방된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이다.³⁵ 중국의 현재 주요 파벌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청단파(투안파이, 團派)로 공산당 청년조직인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의 중앙위원회에 재직할 경험에 있는 엘리트 집단이다. 이에 반해 상하이방은 장쩌민 전 국가 주석과 개인적 인연을 맺은 엘리트 그룹으로 장쩌민 시기의 정책, 즉 성장우선과 연해 지역 중심의 발전 지속에 우호적인 파벌이다. 태자당은 중국 공산당 고위 정치 지도자들의 자녀들로 주로 부모의 후광으로 현재 공산당 내 고위 관료로 진입하고, 집안 간의 유대관계로 그 관계가 끈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 인물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다.³⁶ 김정은 시대 간부정책은 중국의 공청단파와 태자당파의 결합 방식이라 평가할 수 있다. 즉, 청년동맹 출신들과 전직 고위관료의 자녀들이 당 지도부에 대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2. 사상교양 사업의 지속적 강화

북한에서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중요하게 여겨왔으며, 이는 김정은 시대에 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경제난, 주민불만, 외부 정보 유입 등 체제변화의 구조적 요인이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김정일의 유고, 우발적 사고 등에 의해서 체제변화 촉발요인이 발생할 경우 북한에서 시민소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³⁷ 그러나 북한당국은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고 청년조직들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처럼, 우리 청년동맹조직들처럼 수령결사옹위를 제일 생명으로 삼고 수령옹위의 기치높이 광명한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충직한 청년조

³⁴ 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2011 신진연구 논문집』 (서울: 통일부, 2011), p. 254 내용을 최근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음.

³⁵ 배정호 외,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59~60.

³⁶ 배정호 외, 위의 책, p. 62.

³⁷ 박종철 외, 『재스민 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96.

직은 없다”면서 나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³⁸ 그러나 2011년 중동의 ‘재스민 혁명’에서 청년들이 체제변화의 주력 세력을 활약하는 것을 보면서 김정은 시대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재스민 혁명’이라고 불리는 튀니지 민주화 시위는 ‘굴주림의 혁명’이었다고 표현될 정도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시민혁명으로 이어져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것이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이슬람 국가인 튀니지 중부 부지드 지역에서 무허가로 과일 노점상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으로 과일을 모두 빼앗긴 대졸학력의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2010년 12월 17일 분신자살을 하면서 시민혁명이 촉발되었으며, 인근 중동 국가로 급속하게 전파된 것이다.³⁹ 북한은 이러한 재스민 혁명에 대해 미국의 배후설을 제기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조한다. “미국은 ‘색깔혁명’을 일으키는데서 청년들을 돌격대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이전 유고슬라비아의 밀로셰비츠 정권을 전복할 때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돌격대로 내세우고 여기에 수천만 달러를 지원했다. 여기서 재미를 본 미국은 여러 나라들에서의 ‘색깔혁명’을 위해 대학생들을 정치반란에로 내몰았다”고 비난받고 있다.⁴⁰

북한의 김정은은 “반동적인 사상문화침투와 심리모략전은 오늘날 적들이 침략 책동에서 쓰고 있는 기본수법이며 여기에서 주되는 대상은 청년들”이라고 지적한다. 북한 또한 중동의 변화에 대해 “청년들이 적지 않은 작용을 하였다”고 하면서 “청년들을 유혹하여 반동적인 사상문화침투와 심리모략전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려한다고 경계심을 보인다. 그러면서 북한당국은 “사상교양사업을 잘하여 청년들에게 혁명적인 사상의식을 부단히 심어주고 혁명의 진리로 무장시키는 것은 반동적인 사상문화침투와 심리모략전을 막아내고 청년들이 건전한 사상과 계급의식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사업에 적극 떨쳐나설 수 있는 근본방도”라고 강조한다.⁴¹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가는 길이자 조국이 가는 길, 민족이 가는 길, 혁명이 가는 길”이라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견결한 반제계급의식, 확고한 혁명적 원칙성을 체질화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원수들의 그 어떤 비열한 책동도 절대로 통할 수 없다”고 자랑한다.⁴²

³⁸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로동신문』, 2012년 8월 30일.

³⁹ 박종철 외, 위의 책, p. 19.

⁴⁰ “자주시대의 전진운동은 청년들에게 달려있다,” 『로동신문』, 2012년 6월 24일.

⁴¹ “청년들에 대한 사상문화침투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 『로동신문』, 2012년 9월 7일.

⁴² “청년들은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자,” 『로동신문』, 2012년 8월 28일.

북한당국은 청년들에게 “오늘의 청년세대, 이 세대는 최후승리의 기발을 백두산대국에 휘날려야 할 영예로운 사명을 지닌 세대”라고 규정한다.

최후승리의 설계도를 펼친 우리당이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를 가장 투철하게 실천할 것을 바라는 세대, 산악도 격랑도 두렵모르는 슬기와 담력으로 전세대들의 승리의 전통과 위훈을 백두산대국과 더불어 영원히 빛내여야 할 세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걷는 전우대오에서 가장 견실하고 창조적인 삶을 눈부시게 뿌려야 할 세대가 오늘의 청년들이 아닌가. 앞날의 역군, 미래의 주인이라는 말보다는 오늘의 주인, 개척자, 돌격대, 선구자라는 말을 더 사랑하며 끝없는 분발에 사는 청년이라면 강성국가 건설의 각 분야에서 조국의 천금같은 인재가 되어 귀중한 청춘시절을 값있게 보내야 한다.⁴³

현재 북한은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체계화된 ‘김정일애국주의’는 2012년 7월 26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로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는 제목으로 8월 3일 조선중앙통신 등으로 공개되었다. 김정은은 “애국주의 일반이 아니라 우리 조국을 지키고 부강하게 하는 길에서 실지 장군님께서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애국주의, 김정일애국주의”를 말한다고 하면서 김정일을 따라 배워 김정일처럼 북한을 위해 애국하자는 것을 전체 인민들에게 강조한다. 그러면서 청년동맹에게도 “모든 청년들을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시켜 청년대군의 무한대한 힘을 분출시키는데 최대의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은 2012년 청년들의 ‘명절’인 청년절을 ‘새로운 주체 100년’이 시작된다고 하면서 성대하게 진행하였다. 김정은은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일촉즉발의 준엄한 정세 속에서” 도 청년절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리당의 청년중시상에 의하여 승승장구하여 온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어 당을 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애국충정과 억센 기상을 과시하는 대정치축전”이라 하면서 “수백만 청년들을 새로운 영웅적 투쟁으로 고무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⁴⁴ 김정은은 2012년 청년절 기념 축하문에서 “우리 청년들은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충진군대오의 척후대라는 믿음을 안겨주었다”고 강조한다. “오

⁴³ “발걸음도 힘차게 짙은 힘 떨치자,” 『로동신문』, 2012년 8월 27일.

⁴⁴ “축하문 청년절 경축대회 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에게,” 『로동신문』, 2012년 8월 28일.

늘의 시대처럼 모든 청년들이 당의 청년전위라는 고귀한 영예를 지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을 떨치는 보람찬 청춘의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면서 “척후대의 사명을 자각하고 부강조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투장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독려한다.⁴⁵

청년동맹은 김정은의 청년절 축하문의 사상과 내용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벌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는 축하문 발취, 담화, 해설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벌였다. 문답식학습방법, 연구발표모임 등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축하문의 사상을 동맹원들속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활기있게 전개하고 있다면서 청년전위를 비롯한 청소년출판물을 통한 교양사업도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을 독려하였다.⁴⁶

최근 북한에서는 1970년대의 정신을 배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당사가 ‘김일성-김정일’로의 권력승계 시기였던 점과 당시 경제가 가장 활성화되었다 자신들의 평가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대한 시대에는 위대한 시대정신이 있다. 1970년대에는 우리당과 혁명의 역사에서 주체혁명위업의 성스러운 계승의 연대로 찬연히 빛나고 있다. 1970년대의 시대정신에서 근본핵은 자기 영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질풍같이 달리는 속도전의 혁명정신, 이것이 1970년대 차넘쳤던 투쟁정신이다. 1970년대의 시대정신은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김정일애국주의를 빛나게 구현해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무기이다.⁴⁷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새세대들을 1970년대의 시대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어 그들이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우리당만을 믿고 따르는 참된 혁명가로 삶을 빛내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은 소년단 창립 기념행사와 청년절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룬 후 그 성과를 경제적 동원에 활용하였다. 즉, 정치행사를 통한 사상교양 성과를 경제적 동원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소년단 창립 65년 행사에 참석했던 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행사에서 받았던 ‘감동’으로 평양 이광수중학교 학생은 장갑을 비롯한 수 백점의 물자를 영생단 건설장에 보냈으며, 선교구역 소년단원들은 8,000여 점의 관리 도구와 4,000여 그루의 타래붓꽃을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 등에 보냈으며, 순안구

⁴⁵ “절세의 위인들과 청년운동의 새 역사,” 『로동신문』, 2012년 8월 31일.

⁴⁶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 『로동신문』, 2012년 9월 15일.

⁴⁷ “1970년대의 시대정신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자,” 『로동신문』, 2012년 10월 25일.

역 소년단원은 만수대 동상과 만경대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나무 5,900여 그루와 관리도구 2,700여 점을 보냈다. 장강군 장강중학교 김일극 학생은 졸업 후 군대 입대를 다짐하고, 지원물자를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장에 보냈으며, 삼지연 정일봉중학교 정수림이란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아 주변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물자를 관리사무소에 전달하였다.⁴⁸

또한 청년절 행사에 각 부문의 대표로 참여했던 청년들이 행사 이후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진출하겠다는 ‘아름다운 소행’이 발휘되고 있다고 선전하였다. 평원군 인민병원 전영미는 김정은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북부철길개건공사장에 탄원하였으며, 보천군 청년동맹위원회의 김순희와 순천시 순천동 권명성을 비롯한 10여 명은 ‘어머니당의 은정에 보답’하고자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 탄원하였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면서 “청년절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던 청년들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수백만 청년들은 지금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강성국가건설의 제일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에 적극 진출하여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고 있으며 인민경제의 각 부문에서 맡은 초소를 굳건히 지키면서 생산과 건설에서 커다란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선전한다.⁴⁹

결론적으로 김정은 시대 청년동맹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은 중동의 ‘재스민 혁명’의 영향 등으로 이전 시기보다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내용에서는 국가 변영을 위해 모든 주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김정일 애국주의’와 함께 북한 역사에서 ‘변영’과 ‘계승’의 시대였던 1970년대를 회상하고 따라 배울 것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소년단과 청년절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룬 후 그 성과를 경제적 동원에 활용하는, 즉 정치행사를 통한 사상교양 성과를 경제적 동원으로 연결시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3. 경제건설의 주역 지속

북한 청년동맹은 경제건설에도 중요 역할을 수행한다. 권력세습이 공식화된 2010년 이후 군중 및 청년동원 사업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반미·반한 선동 군중대회를 상시 개최하여 북한의 경제난 등 체제적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리고 적개심을 고취해 위기를 극복하여 하고 있다. 김정은도 “청년들은 강성국가건설의

⁴⁸ “당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고결한 충정,” 『로동신문』, 2012년 7월 11일.

⁴⁹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위대한 생활력,” 『로동신문』, 2012년 9월 20일.

어렵고 힘든 전구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조국을 빛내이고 시대를 떨치는 청년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⁵⁰

최용해, 문경덕 등의 핵심 권력층은 청년조직 운영 경험이 풍부하다. 대표적 사례가 2011년 2월 26일 개최된 선군청년총동원대회이다. 이 대회는 북한당국이 당면 국가건설 목표인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청년들을 총동원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북한당국은 이 대회 의미를 “조선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 백두의 혈통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철석의 의지를 안고 당의 강성대국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돌격대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려는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불굴의 기상이 힘있게 과시된 회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참석한 청년동맹원들에게 “백두의 혈통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주체혁명위업 계승의 력사적 전환기에 들어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 안에 당의 유일적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⁵¹

현재 북한 청년동맹에게 부여된 국가차원의 핵심 경제 사업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과 ‘북부철길개건공사’이다. 북한당국은 김정일 시대인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인 청년영웅도로를 청년들이 혁명적 군인정신을 발휘하여 완공했다고 하면서, “오늘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과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를 비롯한 어렵고 힘든 대고조의 전선들을 떠맡아 안고 영웅적 위훈들을 강조”하고 있다.⁵²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는 “주체혁명의 성지인 백두대지”를 부각하기 위해 “백암군의 서두수 상류에 3개의 계단식 발전소로 수력발전소 건설에서 있어 가장 불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극복해야하는 어렵고 방대한 공사”라고 설명한다. 이 발전소 건설은 김정일이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 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문게 믿고” 청년동맹에게 건설 임무를 2004년 6월에 준 것이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은 “강추위가 연중 6개월이나 계속되고 수송조건이 매우 불리한 속에서 심심산중의 험준한 대자연을 개척”해야 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악전고투이며 대격전”이다. 심지어 이 지역은 한 해에 천 번이나 눈비가 내려 ‘천수’라고 불릴 만큼 험악하다. 발전소 건설 임무를 맡은 청년동맹은 사상사업을 벌여 청년들을 적극 동원하였으며, 발전소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수송문제 등을 해결하기

⁵⁰ “우리 청년들의 무한대한 정신력이 낳은 자랑스러운 창조물,” 『로동신문』, 2012년 10월 17일.

⁵¹ “전국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청년들이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 돌격전에서 모두가 청년영웅이 되자,” 『로동신문』, 2011년 2월 27일.

⁵² “그 이름 빛나는 척후대,” 『로동신문』, 2012년 8월 30일.

위해 유희자재 수집 등 좋은일하기운동을 벌였다.⁵³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 청년동맹 궐기모임은 2011년 8월 31일 자강도 만포시에서 개최되었다. 궐기대회에서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북부철길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보수하기 위한 과업을 청년들에게 맡겼다”고 하면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 없이 펼쳐나갈 것”이라 다짐하였다.⁵⁴ 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북부철길 개건보수 공사장에 수많은 청년들이 달려 나가 ‘대중적영증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김정일의 ‘유훈’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의 발현”이라고 강조한다.⁵⁵ 북부철길청년돌격대 양강도 여단은 “눈보라를 헤치며 수만정이나 되는 침목용 통나무를 두 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생산”했으며, 함경남도 여단은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연환경 탓으로 아주 많은 골재를 손수 마대 등으로 나르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2013년 1월 10일에는 전용남 청년동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사 관철 북부철길청년돌격대원 결의모임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북부철길을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없이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개건보수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련과 난관을 웃으며 헤쳐간 전세대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본 받아”갈 것이라 다짐하였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김정은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 당에서 통채로 맡겨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과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장을 비롯한 여러 중요건설대상들에 달려 나가 귀중한 청춘시절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 대견하고 장하다”고 칭찬한다.⁵⁶

북한당국은 청년들이 경제건설에 있어 성과를 냈다고 하면서 다양한 수치와 내용을 발표한다. 북한에는 ‘김일성청년영예상’과 ‘김정일청년영예상’이 있는데, 이것은 “청년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모범적인 청년동맹 조직과 일군, 청년”들을 표창하기 위해 수여하는 것이다. 2012년 8월 현재 김일성청년영예상은 거의 900여 개의 청년동맹 단체와 1만 100여 명이 수상하였으며, 김정일청년영예상은 110여 명이 수상하였다.⁵⁷ 또한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3D(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라고 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부문’에 2000년대 들어선 이후 36만여 명의 청년들이 자원 진출했다고 한다.

⁵³ “열혈청춘들이 창조하는 새 세기의 영웅서사시,” 『로동신문』, 2012년 8월 23일.

⁵⁴ “북부철길개건보수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펼치자,” 『로동신문』, 2011년 9월 1일.

⁵⁵ “선군청년전위의 용맹을 펼치도록 고무추동,” 『로동신문』, 2012년 12월 11일.

⁵⁶ “축하문 청년절 경축대회 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에게,” 『로동신문』, 2012년 8월 28일.

⁵⁷ “태양의 존함을 빛내여가는 청년전위들,” 『로동신문』, 2012년 8월 20일.

또한 북한에는 ‘선군청년화불상’이란 것이 있는데, 이 운동이 시작된 2004년부터 2012년 9월 중순 현재까지 선군청년화불상을 쟁취한 청년동맹 조직들은 전국적으로 400여 개에 이른다고 선전한다. ‘선군청년화불상쟁취운동’은 김정일은 2003년 10월 “선군시대에 맞게 청년들을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선군청년화불상을 시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안겨주신 혁명의 화불봉을 높이 추켜들고 부강조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청년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최대한 높여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대중적 혁신운동”이다. 이 운동은 청년동맹 각 조직들이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결의목표들을 세우고 그것을 관철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장, 기업소, 직장, 작업반과 자기 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혁명적 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휘하여 맡겨진 매월, 매분기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것이다.⁵⁸

청년동맹은 국가의 주요 기념일을 맞을 때도 조직들에게 경제적 성과를 독려한다. 2012년 청년절을 앞두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에서도 성과를 더욱 내기 시작했다. 몇해 전에 1호 발전소가 조기 조업(2010년 12월)한데 이어 2호 발전소의 기본 언제(댐) 쌓기도 끝나 2년을 예상했던 공사가 1년 5개월 만에 끝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가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적 헌신주의를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방대한 작업량을 해결했다는 것이다.⁵⁹ 청년절을 앞두고는 기본 댐 완공한 것을 “김정은 동지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떨쳐나선 백두산 청년전위들의 충정과 열정으로 쌓아올린 위훈의 탑”이라 선전한다.⁶⁰ 또한 2012년 연간인민경제계획을 조기 달성한 청년동맹원은 2만 2,800명에 달한다고 하면서, 홍원철제일용품공장 청년동맹원들은 청년절을 앞두고 당 조직의 지도 밑에 “혁명성과 헌신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연간계획을 조기 달성하였으며, 평산대리석광산 90여명의 청년동맹원 또한 기술혁신운동을 전개해 생산성과를 높여 계획을 초과 수행하였다고 선전하였다.⁶¹

2013년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로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김정은은 인민을 위해 스키장을 건설할 것을 지시하고 그 임무를 군대에 부여하였다. “남들 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해 낼 수 없는 대공사”를 올해 안에 완공하여 “인민

⁵⁸ “청년전위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대중운동,” 『로동신문』, 2012년 9월 14일.

⁵⁹ “기본언제쌓기를 끝냈다,” 『로동신문』, 2012년 8월 22일.

⁶⁰ “조국의 자랑- 청춘의 힘,” 『로동신문』, 2012년 8월 27일.

⁶¹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청년전위들,” 『로동신문』, 2012년 8월 29일; 또한 2013년 북한의 ‘전승절(7.27)’ 앞두고서는 백두산선군청년2호발전소 언제와 조압수조건설공사 완공을 선전하였다. “청년들을 사랑하라,” 『로동신문』, 2013년 8월 28일.

들과 청소년들에게 더욱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북은 “불굴의 정신력과 완강한 돌격전으로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독려한다.⁶² 김정은은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 공격 속도인 ‘마식령속도’를 창조”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마식령속도’는 김일성-김정일 시대 국가건설 구호였던 천리마속도, 비날론속도, 80년대속도, 희천속도 등을 계승한 것이다.⁶³

청년동맹 또한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자는 호소에 적극적으로 동원된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장의 ‘현장연합지휘부’에서는 선전선동수단들을 집중 동원하여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경제성과를 낳도록 독려하였다.⁶⁴ “오늘 북부 철길개건보수 공사장에서는 대고조 실천을 통하여 김일성민족의 후손, 김정일 동지의 전사, 제자의 도리를 다하려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드높은 열의 속에 혁신의 불길이 날로 거세차게 타오르고 있다.”⁶⁵ 김정은의 ‘마식령속도’를 창조할 것에 대한 호소에 대해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와 북부철길청년돌격대의 모든 구성원들은 “매일 매 시각 대비약, 대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작업에 몰두하였다. 언제(담) 공사를 맡은 함경남도 여단은 작업 순서를 정리한 다음, 기술혁신안을 수용하여 3배로 높였다. 황해남도 여단 청년돌격대원은 새로운 타입공업을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종전에 비해 1.8배 높였으며, 강원도 여단 청년돌격대원은 1주일 이상 걸리는 다리 보수를 단 4일 만에 완료하여 골재수송을 원활히 이루는 성과를 낳았다고 선전한다.⁶⁶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대장인 김상민은 ‘마식령속도’ 독려에 대해 “김정일 애국주의를 정신력의 근본 핵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 경쟁을 잘 조직하여 전투장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발전소 건설도 완공의 날을 앞당기겠다고 호응한다.⁶⁷

장기 악화 상황의 경제의 돌파구를 근본적으로 모색하지 않는 이상 청년동맹에

⁶² 김정은, “호소문-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13년 6월 4일.

⁶³ “눈보라를 뚫고 산악같이 펼쳐나,” 『로동신문』, 2012년 2월 25일.

⁶⁴ “청춘의 기개와 용맹을 떨치며 계속 전진,” 『로동신문』, 2013년 8월 30일.

⁶⁵ “눈보라를 뚫고 산악같이 펼쳐나,” 『로동신문』, 2012년 2월 25일.

⁶⁶ “새로운 시대속도를 창조하며 연일 혁신,” 『로동신문』, 2013년 8월 8일.

⁶⁷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온 세계 앞에 보여주자,” 『로동신문』, 2013년 6월 8일.

대한 동원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최용해 등은 청년동맹의 적극적으로 동원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회 각 부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청년들이 공사장에 동원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북한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일인지는 의문이 있는 것이다.

IV. 김정은 시대 청년동맹의 전망

김정일 시대 청년동맹의 역할과 비교를 통해 향후 청년동맹의 역할과 활동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김정일 시대 청년사업의 ‘치적’에 대해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한 것과 청년절 제정, 청년동맹 조직 명칭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한 것, ‘혁명의 횃불봉’, 기념비적 창조물에 ‘청년’의 명칭을 부여한 것을 들고 있다.⁶⁸

김정은 시대에서도 청년들이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사상교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북한은 “준엄하였던 1990년대에 태어난 세대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지만 당과 수령을 받드는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며, 세대와 세기를 이어 사상의 대, 신념의 대를 꺾듯이 이어”가고 있어 창창하다고 ‘낙관’한다.⁶⁹ 그러나 북한이 처하고 있는 대외적 환경이 어려운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북한의 대외환경을 가름할 수 있는 핵문제 대해 북한당국은 여전히 포기 의사가 없으며, 오히려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천명함으로써 주변국의 우려를 더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차원의 논의 틀인 6자회담이 2008년 12월 이후 재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북한의 대외환경은 개선되지 못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또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당국은 청년들의 사상교양 상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하지만 ‘새세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해타산이 빠르고 경제적 사정과 금전적 감각이 기성세대에 비해 뛰어나다. 기성세대가 정해진 자신의 삶에서 안주해서 살아가는 경향이 크다면, 이들은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삶,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사상교양이 소홀할 경우 체제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⁷⁰

⁶⁸ “청년들은 선군조선의 승리의 역사를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로동신문』, 2013년 8월 28일.

⁶⁹ “청년들은 당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예를 떨치자,” 『로동신문』, 2011년 8월 28일.

청년동맹은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경제 상황 개선에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이는 다양한 청년돌격대운동이 광범하게 활동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한 현실에서 모든 경제현장에서 자재 보장이 어렵기에 기계 대신 몸으로 대체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때 청년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청년돌격대운동이 더욱 강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청년돌격대운동을 통해 “우리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실천투쟁 속에서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청년돌격대 운동은 청년들을 난관과 시련을 극복해나가는 실천투쟁속에서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하는 용광로 역할을⁷¹ 하기에 일석이조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청년돌격대는 당정책관철에서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부대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후비대를 키워내는 정치적 부대”라고 하는 것이다.⁷² 또한 ‘선군청년화불상쟁취운동’과 같은 사회주의 경쟁운동, ‘70일전투’와 같은 ‘사회주의 건설 투쟁에서의 속도전’을 통해 경제건설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청년들이 북한사회에서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한다는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김정일은 청년절 제정, 조직 명칭에 ‘김일성’ 이름 부여 등을 했다. 여전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물이나 청년들이 큰 역할을 한 시설물에 ‘청년’ 명칭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측면에서 청년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에 ‘청년사업부’ 부활을 전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제2차 당대회에서 청년사업부를 폐지했다가 권력승계 시기인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부활한 적이 있다. 이는 1969년 조선노동당 제4기 20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사로청 사업, 청소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 잘하기 위하여 당 중앙위원회와 도·시·군 당위원회들, 그리고 큰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들과 인민군대 안의 정치부들에 청년사업부를 내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라고 했다. 즉, 미래형 서술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5차 당대회 이후 시점인 1970년 11월 24일 김일성이 당 중앙위원회 청년사업부, 사로청 중앙위원회 일군들을 대상으로 연설한 것을 볼 때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청년사업부를 부활한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⁷³ 김정은 시

⁷⁰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 40.

⁷¹ “아버이 사랑속에 자라난 강철의 대오,” 『로동신문』, 2012년 8월 31일.

⁷² “청년돌격대운동의 빛나는 역사를 창조하신 불멸의 업적,” 『로동신문』, 2013년 8월 28일.

⁷³ 최대석·김중수, “북한 권력승계 시기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변화 연구,” 『현대북한 연구』, 9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6), p. 100.

대 초기 청년사업부를 부활한다는 것은 청년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보다 강화하고 다른 근로단체들보다 청년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 사회적으로 선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적지도를 강화되어 실제적인 청년동맹에게 부여된 정치적 역할이 보다 원활히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체제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V. 결론

북한은 김정일이란 강력한 권력자가 사망하고 정치적 카리스마와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였다. 청년계층은 새로운 것에 민감한 세대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청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며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따라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가 좌우”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김정은 시대 초기 청년동맹의 역할을 분석하여 체제 안정성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청년들은 ‘유일 조직’인 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 청년동맹은 “당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의 대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앞장서는 돌격대”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전환의 시대’에서 권력승계 성공여부는 국가 간부들을 어떻게 등용하고 이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정은 시대에서는 청년동맹을 지도했던 최용해, 문경덕 같은 인물들이 당의 핵심 지도부로 부상하는 특징이 있다. 물론 청년동맹 출신 간부들의 당 지도부 진출 현상은 김정일 시대에도 있었지만, 김정은 시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직이 높고 많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수령의 세습’과 함께 ‘간부의 세습’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같은 현상은 중국 5세대 지도부에 태자당파와 공청단파가 주를 이루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북한에서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김정은 시대가 등장하는 시기 즈음에 발생한 중동의 ‘재스민 혁명’에서 청년들이 체제 변화의 주력세력을 나서는 것을 목격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사상통제가 더욱 중요하게 부상한다. 이에 북한당국은 청년들이 확고한 혁명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상교양사업을 잘하여 “반동적인 사상문화 침투와 심리모략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이루어졌으며 북한경제가 안정적이었던 1970년대를 위대한 시대로 규정하고 청년들에게 1970년대 시대정신

을 배우기 위한 교양 사업을 강조한다.

현재 북한 청년들은 국가차원의 핵심 경제 사업인 ‘어렵고 힘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와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처해 있지만 청년들이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중요한 건설 사업을 맡아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전체 주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마식령스키장 건설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면서 ‘마식령속도’를 창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청년들도 ‘마식령속도’ 창조운동에 호응하여 경제동원 사업에 더욱 동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 청년사업의 ‘치적’으로 내세웠던 청년들의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 역할은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에 대한 당적지도 강화와 다른 근로단체보다 청년동맹이 더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는 자긍심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계승의 시대’였던 1970년에 부활했다가 현재는 폐지된 당 중앙위원회 청년사업부의 부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접수: 10월 31일 ■ 심사: 11월 06일 ■ 채택: 11월 25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종수. 『북한 청년동맹 연구』. 파주: 한울, 2008.
- 김진하.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김홍광 등. 『김정은의 북한은 어디로?』. 서울: 늘봄플러스, 2012.
- 박종철 외. 『재스민 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박형중 외.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배정호 외.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 외교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이교덕 외.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이은숙·이인정.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조선민주녀성동맹』. 서울: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0.
- 정승욱. 『김정일 그 후』. 서울: 지상사, 2011.
- 정영태 외.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2011 신진연구 논문집』. 서울: 통일부, 2011.

통일부.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 2013』. 서울: 통일부, 2013.

2. 논문

김근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 지속과 변화.” 『평화학연구』. 제14권 3호, 2013.

김종수. “북한 체제 변화와 ‘청년동맹’: 동유럽 사례와 비교.” 『평화학연구』. 제11권 1호, 2010.

이종석.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연구.” 이종석 편.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 세종연구소, 1998.

최대석·김종수. “북한 권력승계 시기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변화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9권 1호, 2006.

3. 북한 자료

박정렬.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규약해설』.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4.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_____.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8월 23일).” 『김정일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4. 기타 자료

『매일경제』.

『통일뉴스』.

A Study on the Kim Il-Sung Socialist Youth League in the Kim Jong-Un Era

Jong-Su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regime stability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orth Korea) and prospect the regime by analyzing the role of the Kim Il-sung Socialist Youth League(KSYL). Currently, North Korea is unaided, so the youth play a key role in maintaining and developing the North Korean regime.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Kim Jong-un became his successor and but it seemed to that he did not have support base politically and form Charismatic leadership. Therefore, success or failure of his power succession totally depends on how to educate and select party and government officials and adjust their political profits. Kim Jong-un has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the KSYL for these reason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ex-the KSYL officials have emerged as new core political leaders of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NKWP) in the Kim Jong-un era. It was also usual for ex-the KSYL officials became core leaders of the NKWP in the Kim Jong-il era, but a big difference is that in comparison to the Kim Jong-il era, most of the ex-the KSYL officials have become key political leaders at the party and government and powerful in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enforced educational work for the youth in the Kim Jong-un era, because when he was appointed to Kim Jong-il's successor, Jasmine Revolution broke out and North Korea saw the youth in Arab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the regime change.

For this reason, it is becoming more important to strengthen educational work for the youth in the Kim Jong-un era. Recently, North Korea has mobilized the youth to construct the Paekdu Sungun power plant and repair planned the Pukbu railroad that are core economic plans in the Kim Jong-un era. These works enable North Korean people to realize that North Korea's economic situation is still poor, but our leader Kim Jong-un does his best to continue and develop the socialist state with the youth.

Key Words: The Kim Il-sung Socialist Youth League, Kim Jong-un, Shock Brigade, Choi Ryong-hae.